

저출산, 그리고 주거 지원

강 영 신 (주택금융연구원)

- ❶ 2021년 국내 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산율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 중 주거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❷ 그에 따라 해외 각 국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주택공급, 금융지원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육아 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중

2021년 국내 총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하였으며,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규모는 2020년 3만명에서 2030년 10만명, 2070년 51만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이후 최저치를 기록

*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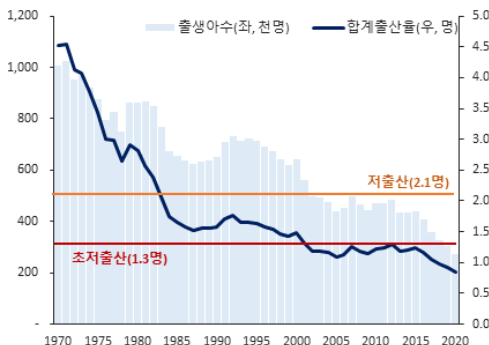
- ◆ 저출산(Low Fertility)이란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인구유지를 위한 수준(2.1명)보다 낮은 상황을 일컬으며,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에는 초저출산이라고도 함

- 한국은 1983년부터(2.06명) 저출산 상황에 처하였으며, 2002년 합계출산율 1.18명을 기록하여 초저출산에 접어들게 됨

-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1.61명, 2019년 기준)에 못 미치는 수치로 일본(1.36명), 싱가포르(1.14명) 등의 아시아 국가나 프랑스(1.87명), 독일(1.54명), 스웨덴(1.7명) 등의 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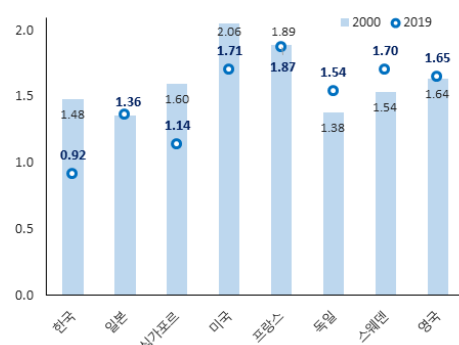
-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00년 1.48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감소한 것에 비하여 독일이나 스웨덴은 2000년 대비 2019년 합계출산율이 증가

〈한국의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추이〉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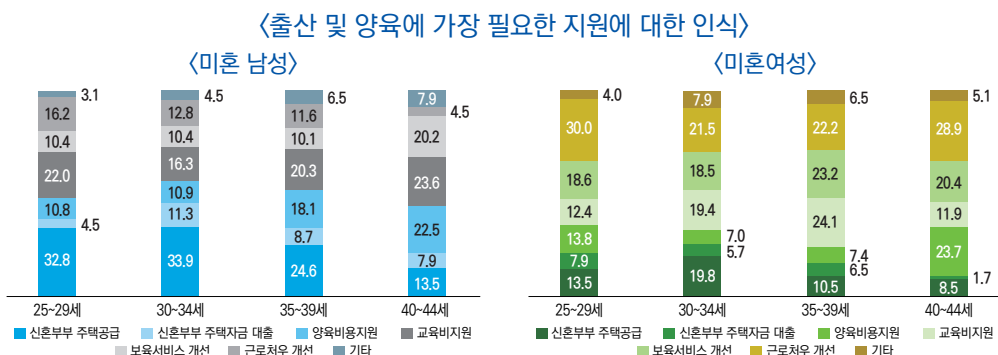
〈주요국과의 합계출산율 비교〉



※ 자료: OECD

출산율에는 인구, 사회,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주택도 출산율과 연관된 중요한 요인

- ▶ 혼인율 하락, 초혼연령·출산연령 상승 등의 인구학적 요소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의 사회·경제학적 요소가 출산율을 낮춘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조사에 따르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는 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비 지원, 보육·육아서비스 등
 - 2015년 미혼남녀(20~44세)의 출산 및 양육에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26.2%), 자녀 교육비 지원(21.5%), 자녀보육·육아 교육비 지원(14.3%)이, 여성은 자녀교육비 지원(17.1%),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14%),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13.1%)이 필요하다고 응답
 - 미혼남성 30~34세는(2020년 남성 평균 초혼연령 33.2세)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신혼부부 대상 주택 자금 대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여성 40~44세에서는 자녀보육, 육아 보육비 지원에 대한 응답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조사(2015년)

※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주) 보육서비스개선-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대; 근로처우개선-근로형태 유연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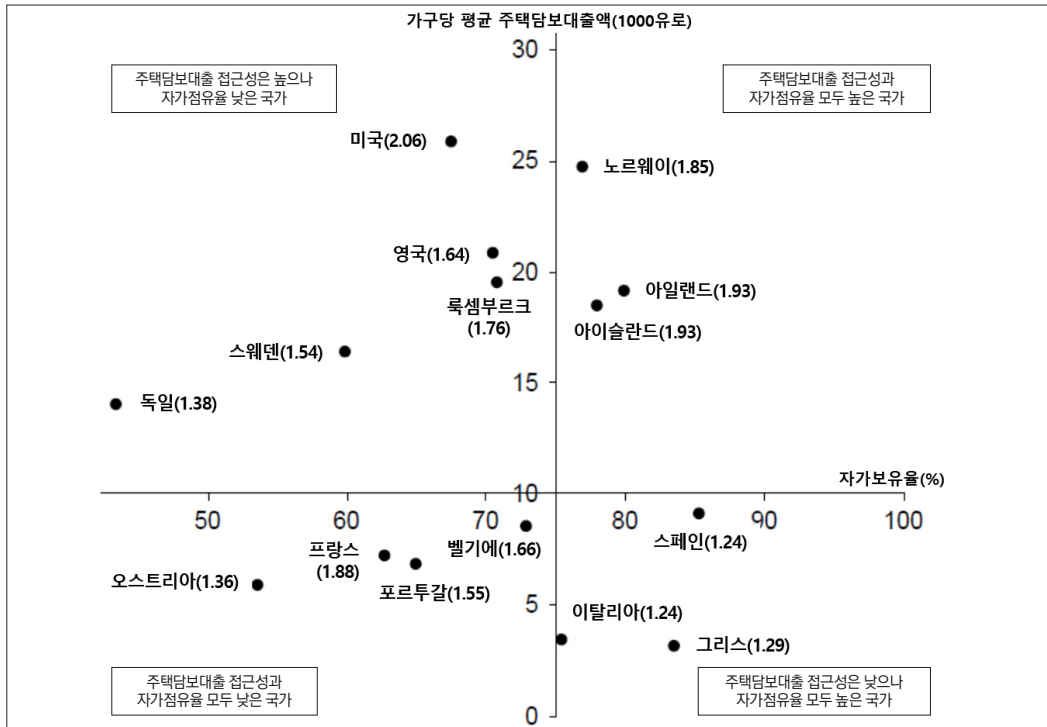
- ▶ 설문조사 결과 외에도 주택 자가 소유, 주거 환경, 주거비, 주택담보대출 접근성 등 주택과 출산율간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 존재
 - 일반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확보될수록, 즉 자가에 거주하거나 주거비용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으며, 주택담보대출 접근성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거 안정성이 높은 자가가구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반면 자가점유율은 높고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이 낮은 국가의 경우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

- ▶ 주택 점유 유형과 출산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자가, 전세, 월세 순으로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이삼식 외, 2013; 김경아, 2017)

- ▶ 자가점유율과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이 높은 편인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합계 출산율은 높은 편이었으나, 자가점유율은 높으나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이 낮은, 즉 주택담보대출 접근성이 낮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합계출산율은 낮은 편(Mulder&Billari, 2010)

〈주택소유율·주택담보대출 접근성과 출산율〉



※ 자료: Clara H. Mulder & Francesco C. Billari (2010) Homeownership Regimes and Low Fertility, Housing Studies, 25:4, 527-541

- ▶ 따라서 각 국가들은 자가 소유를 위해 주택 구입 시 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거나 장기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정책을 시행
- 헝가리에서는 40세 미만의 초혼 여성에게 결혼 시 무이자 대출을 제공, 아이를 낳을 경우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2명 출산 시에는 상환액의 일부를 삭감해주며, 3명 출산 시에는 상환액 전액을 면제
 - 일본에서는 민간 금융기관과 주택금융지원기구(JHF)가 함께 최장 35년 장기 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초기 목적은 안정적 주택구입 지원이었으나 도입 이후 육아세대에게 효과적인 주택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식됨
 - 프랑스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정에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최대 25년간 집값의 80~90%를 정부에서 대출 지원

▶ 또한 주거비용이 부담되거나, 자가 마련 비용과 자녀 양육비용 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자가 소유를 선택한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다수의 국가에서 신혼·육아 가구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

▶ 출산율이 높은 국가(덴마크, 네덜란드)는 주거비 부담이 낮으나 출산율이 낮은 국가(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나타났으며(장혜경, 2005), 자가 마련 비용과 자녀 양육비용의 경쟁으로 인해 자가 소유 가구의 출산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음 (courgeau&Lelivre, 1992)

- 따라서 주거비용이 낮아질수록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도 낮춰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 발생 가능(Malmberg, 2001)

▶ 프랑스에서는 임대료, 가구수입, 주택유형에 따라 주택 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신혼부부 및 아동이 있는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지원 수단 중 하나임

- 자가가구의 경우 아동이 둘 이상 있거나 지체 부자유한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주택 관련 세금을 일부 감면해주며, 주택개량이나 이주가 필요할 경우 관련 비용도 지원

-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및 서비스비 일부를 정부에서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

▶ 싱가포르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일정 소득 미만 가구에게 주택 구입자금 지원

- 신축 분양권 구입이 재고주택에 비해 3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재고주택 구입 시 추가 지원금 지급

〈싱가포르 주택 보조금〉

구분		EHG*	CPF* Housing Grant
신축주택			-
재고주택 (Resale)	방 4개 이하	• 최대 S\$ 80,000(약 7,26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S\$ 50,000(약 4,500만원) • 소득 S\$ 14,000 미만 가구(약 1,270만원)
	방 5개 이상	• 소득 S\$ 9,000 미만 가구 (약 820만원)	• S\$ 40,000(약 3,600만원) • 소득 S\$ 14,000 미만 가구(약 1,270만원)

※ 자료: madeforfamilies.gov.sg

※ EHG(Enhanced CPF Housing Grant), CPF(Central Provident Fund)

◆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은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세대나 고령층과의 융합된 주거형태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음

◆ 싱가포르에서는 M&P Packages*에 근거하여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거나,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출산예정 포함) 정부 제공 공공주택(HDB)의 신규 분양 우선권을 제공하며 부모 거주 지역 근처에 거주하려 할 경우에도 신규 분양 우선권 제공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 M&P Packages: 1987년 처음 추진된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s(결혼 및 출산 장려 종합대책)는 사회 구조의 변화 흐름에 따라 점차 발전하였으나 낮은 출산율 해결과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

- 2022~2023년 23,000호의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방 3개 이상의 공공주택(Sale of Balance Flats, SBF) 중 95%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제공할 예정

- 육아 가구가 부모 거주 지역에서 반경 4km 이내에 있는 HDB를 구입할 경우 최대 3만 싱가포르 달러(약 2,700만원)의 보조금(PHG, Proximity Housing Grant) 지급

◆ 일본은 '결혼·출산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 자녀양육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민간 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지원

〈신혼·육아가구를 위한 일본의 주택 정책〉

구분		공급주체	공급대상	입주 조건	지원 내용
공공	공영주택	공공	육아 가정, 다자녀가구	하위25%(재량으로 하위 50%까지 가능)	• 임대주택 우선입주 지원
	지역우량 임대주택	공공/민간	신혼가구, 18세 미만 동거인이 있는 가정	하위 80%	• 임대주택 건설, 개량 비용지원 • 임대료 감액(45% 할인)
	UR(도시재생기구) 주택	UR	육아가정(18세 미만), 신혼 부부	소득 상한 제한 없음	• 임대료 감액(20%) • 3년 정기계약 지원
민간	주택확보 요배려자 안심거주 추진사업	민간	18세 미만 동거인이 있는 가정	하위 25%	• 리모델링 비용 보조
	지역 육아 아파트 인증제도	민간	육아지원시설 병설 주택	소득 상한 제한 없음	• 용적률 완화, 보조금 지원 • 주택구매자 대출 금리 우대

※ 자료: 정소이 외(2016) 생애주기별 주거수요 대응형 공공주택 공급방향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 주택확보 요(要)배려자 안심거주 추진 사업은 민간 빈 집을 리모델링 후 일정 수준 미만의 임대료로 육아 세대에 공급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며, 지역 육아 아파트 인증제도는 육아 친화적 거주환경, 육아보육시설이 준비된 아파트를 인증하여 용적률 완화, 육아 지원 아파트로 홍보 등을 지원

〈요코하마시 육아 아파트 인증 개요〉

〈마크원 타워 나가초다 전경〉



〈육아 아파트 인증 조건〉

구분		지원 내용
필수	주택면적	55m ² 이상 주택이 1/3이상
	장애인시설	공용 복도에 단차가 없으며, 엘리베이터 설치
	방음성	바닥 슬라브 두께 200mm 이상
권장	건물 구조	방음 설비, 키즈룸 등의 공용시설 구비
	건물 배치	부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건물 주변 녹지 배치, 안전한 주변 보도
	설비	창호 손가락 부상 안전 설비, 발코니 싱크대 설치, 유모차 보관에 용이한 넓은 현관, 추후 공간 분리 가능한 구조, 벽장·창고 등 기타 수납공간
	방법	창문 방범시설, 외부인 공용시설 출입 통제, 경비원 등

※ 출처: 요코하마시 홈페이지(www.city.yokohama.lg.jp)

- 일반적인 육아 가정에 대한 지원 외에도 3세대 동거 지원을 위해 부모·자녀세대가 인접 거리에서 도시재생기구(UR, Urban Renaissance Agency)의 공공임대주택 이용 시 공공주택 임대료를 20% 할인, 3세대 동거 대응 주택정비·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
- ▶ 독일에서는 1980년 공동육아 시설인 ‘마더센터’를 시작했으며 이를 토대로 2006년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하우스(Mehrgenerationenhäuser)’ 프로그램을 시작
 - 약 540개의 다세대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대 간 통합 및 정서적 결합이 중점적 요소로 노년세대에게 필요한 도움을 젊은세대가 지원하며, 젊은세대의 자녀 양육을 노년세대가 도움
 - 다세대하우스의 운영을 위해 5년간 국가, 유럽사회펀드, 지역사회공동체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지원금은 거주자의 복지를 위한 교육, 스포츠 클럽 관리, 기타 관리 등에 사용됨

다가오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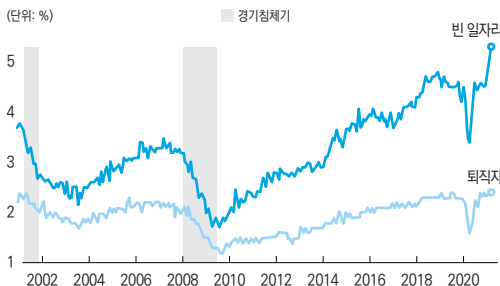
유 선 영 (주택금융연구원)

- ❶ 저출산·고령화 사회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인력난, AI기술 발달 등으로 관심이 확대되며 로봇이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
- ❷ 국내외 사례를 봤을 때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제조용 로봇 위주로 개발·활용되던 기존과 달리,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서비스용 로봇 개발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❶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동력 부족, AI 기술 발달 등이 진행되며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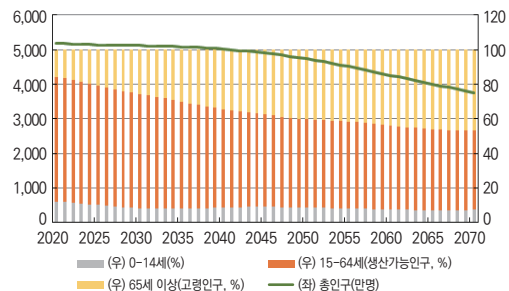
-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출입국 절차가 강화되고 인력난으로 인건비가 상승되며 2020년 이후 미국 빈 일자리 및 퇴직자 수 증가율이 급증
- ▶ 이에 미국 주요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노동력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을 산업 현장에 투입하거나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실제로 미국 산업단체인 A3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제조 공장 등 산업용 로봇 주문건수가 약 3만 9천여 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 역대 최고치 기록
 - 2022년 1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2021년 4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을 연내 출시하여 향후 테슬라 전기차 생산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 ▶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 파트너 마이클 추이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계기로 사람들의 AI기술 수용 속도가 빨라지면서, 2055년쯤에는 현존하는 직업과 업무량의 약 50%가 로봇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

〈미국 빈 일자리 및 퇴직자 수 변화율〉



※ 자료: 경향신문(2021.6.17.) 자료 재인용

〈한국 주요 인가지표 장래추계〉



※ 자료: 통계청 KOSIS 자료 재구성

▶ 한편, 한국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며 발생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의 대응책으로 로봇산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

-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출산율은 0.837명으로 사상 최저수준에 도달했으며 향후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
- 이에 한국은 2020년 10월 유망 신산업으로 로봇분야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1년 4월에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마련

▶ 로봇은 사용처에 따라 제조용 및 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하며, 해외에서는 다양한 산업에서 로봇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임

▶ 로봇이란 인간의 행동·작업 등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기계장치로, 사용처에 따라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국제로봇연맹 IFR, 2021)

〈로봇의 정의* 및 분류기준〉

구분			내용
로봇	제조용 로봇		자동제어 및 재프로그래밍 가능하여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3축(axis) 이상의 축을 가진 산업자동화용 기계로서 바닥이나 모바일 플랫폼에 고정되어 있는 장치
	서비스용 로봇	전문 서비스용 로봇	의료, 군사, 구조, 보안 등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	가사, 엔터테인먼트, 장애인·노약자 보조 등 대인지원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 여기서 규정하는 로봇은 협의의 개념임. 광의의 로봇은 자율주행차, 드론 등도 포함하여 정의할 수 있음.

※ 자료: IFR 'WR 2021 Industrial robots' 등 취합하여 재구성

▶ 유럽 자동차업체 스텔란티스의 경우, 이탈리아 토리노 공장의 최종 조립 구역에서 신형 피아트500 전기자동차 생산을 돕기 위해 유니버설 코봇(Co-bot)을 채택

- 덴마크 제조업체인 유니버설의 코봇(Co-bot, 협동로봇)은 로봇 팔이 차량 위를 움직이는 틀에 부착되어 있으며, 이 틀에서 너트를 고정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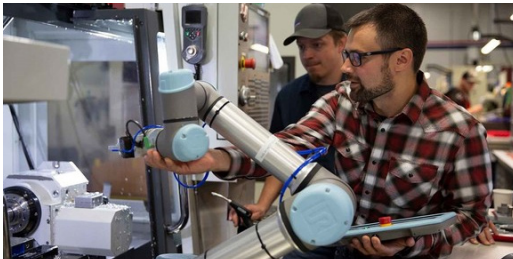
▶ 글로벌 피자 브랜드 도미노(Dominos)는 미국 로보틱스 스타트업 누로(Nuro)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Nuro R2'를 채택하여 美 휴스턴 지역에서 무인으로 피자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

- Nuro R2는 레이더와 열화상,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자율주행하는 배달로봇으로, 식료품 등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도 제어 기능과 도착 후 수령인이 제공받은 코드를 입력하면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음

▶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 학습수준을 분석하여 맞춤형 질문 제시와 수업난이도를 조절하여 23개국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댄스·노래·연주 등 예체능 기능도 탑재한 Utelias Technologies의 소셜로봇인 엘리아스(Elias)를 활용

- ◆ 프랑스 리옹 공항도 프랑스 스타트업 스탠리 로보틱스(Stanley Robotics)의 자율 주차로봇 '스탠(Stan)'을 도입하여 무인 주차서비스를 제공 중임
- ◆ 영국 수술로봇 제조업체 CMR Surgical의 수술로봇 '베르시우스(Versius)'는 영국, 인도 등에서 대장, 기도수술에 투입되어 수술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임
 - Versius는 세 개의 팔로 구성된 수술용 로봇으로, 각 팔에는 카메라와 바늘 같은 장치가 있어 수술 부위를 3차원으로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절개와 봉합이 가능
- ◆ 간호사 로봇 시라-03(Cira-03)도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체를 채취하여 이집트 의료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
 - 이외에도 환자의 체온측정, 혈액채취, 심전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흉부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검사결과를 바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음

〈덴마크 Universal 협동로봇 'UR5e 코봇'〉



※ 자료: <http://www.therobotreport.com> 재인용

〈미국 Nuro 자율주행 배달로봇 'Nuro R2'〉



※ 자료: 디지털데일리(2022.2.3.) 재인용

〈핀란드 Utelias Technologies 소셜로봇 'Eli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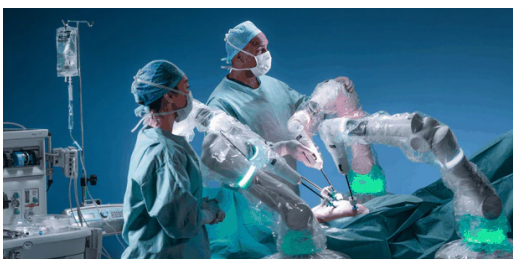
※ 자료: <http://scholarlyoa.com> 재인용

〈프랑스 Stanley Robotics 자율 주차로봇 'Stan'〉



※ 자료: 로봇신문(2019.3.19.) 재인용

〈영국 CMR Surgical 수술로봇 'Versius'〉



※ 자료: 英 CMR Surgical 자료 재인용

〈이집트 간호사 로봇 'Cira-03'〉



※ 자료: NOWNEWS(2020.1.20.) 재인용

◆ 한국은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제조용 로봇 위주로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용 로봇 개발로 확장하는 추세

- ▶ 2021년 4월 협동로봇, 실내 이송로봇, 선박 하부 청소로봇 등 로봇 일부가 상용화됐으며, 향후 기타 서비스용 로봇은 실험 및 상용화될 예정
 - 실외배달로봇, 주차로봇, 전기차 충전로봇 등은 연내 상용화될 예정이며, 이외 건설로봇(R&D 또는 시제품 실증단계), 재난·안전로봇(R&D단계), 돌봄·재활로봇(일부 상용화) 등은 향후 정부 로드맵에 따라 진행될 예정

◆ 전문가들은 향후 로봇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로봇 출현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로봇시장의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美 A3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20년부터 자동차 산업보다 다른 산업의 로봇수요가 많아졌는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산업은 금속과 식품, 소비재라고 설명
 - 국내 로봇 적용분야도 자동차, 전기·전자산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금속기계, 바이오, 화학, 식음료 등 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까지 다변화 중임
- ▶ 그중에서도 지능형·서비스용 로봇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호주 투자은행 맥쿼리(Macquarie) 보고서(2017)는 세계 서비스 로봇시장이 연평균 32%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US 1억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
 - 서비스용 로봇시장 중에서 물류로봇, 의료용로봇,接客로봇, 배달로봇 등이 매출 및 출하대수 규모 측면에서 향후 가장 유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농업로봇, 군사로봇, 외골격로봇 등의 시장 성장세도 기대된다고 설명
 - 국내도 현재 서비스용 로봇이 청소, 실내서빙 등 한정적으로 운행 중이나, 향후 로드맵에 따라 서비스용 로봇의 가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한편,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지만 보완효과도 발생되어 노동수요를 증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로봇 등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 관련 보고서〉

구분	내용
PwC(2018)	2037년까지 영국 일자리의 20%가 대체되어 약 700만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과 동시에 72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일자리 20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McKinsey&Company(2017)	2030년까지 약 9천만~1.5억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WEF(2018)	향후 10년간 로봇 관련 기술부상으로 7.5천만개 일자리가 감소하겠지만, 동시에 1억 1,3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5.8천만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자료: WEF(2018) 'Future of Jobs' 등 자료 취합하여 재구성